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Steve Jobs』 평전의 무생물주어
타동사 구문 영한번역 양상 연구



2015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영어영문학과

김 태 훈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Steve Jobs』 평전의 무생물주어
타동사 구문 영한번역 양상 연구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을 문학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영어영문학과

김 태 훈

김태훈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2월



주심 언어학박사 박 순 혁 (인)

위 원 언어학박사 한 지 원 (인)

위 원 언어학박사 김 은 일 (인)

목 차

영문 초록	iii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4
2.1. 유생성	4
2.2. 타동성	5
III. 무생물주어 타동사구문의 영한번역 양상	9
3.1. 주어 유지	9
3.1.1. 타동사구문으로 번역	11
3.1.1.1. 인간행위자 암시	11
3.1.1.2. 타동성이 낮은 경우	13
3.1.1.3. 타동성이 높은 경우	15
3.1.2. 자동사 구문으로 번역	18
3.2. 주어 변경	21
3.2.1. 타동사구문으로 번역	22
3.2.1.1. 생물주어 구문	22
3.2.1.2. 무생물주어 구문	26

3.2.2. 자동사구문으로 번역	28
3.2.2.1. 생물주어 구문	28
3.2.2.2. 무생물주어 구문	31
 IV. 결론	 36
분석자료 목록	39
참 고 문 헌	40



A Study on the Aspect of English - Korean Translation for Inanimate
Subjects - Transitive Verb Constructions in the Critical Biography 『Steve
Jobs』

Tae Hoon Kim

Graduate School of English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how English inanimate subjects - transitive verb sentences are translated into Korean. Actually, inanimate subjects frequently appear in English sentences, while hardly appearing in Korean sentences. In comparison with English, Korean is usually influenced by animacy constraint so strongly and the human subject tends to be preferred to the inanimate subject.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150 English inanimate subjects - transitive sentences were selected from the critical biography 'Steve Jobs' along with the counterpart sentences from its translated version in Korean.

This paper is to help develop the techniques of translating English sentences with an inanimate subject followed by a transitive verb into Korean.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nanimate subjects such as a country, a group, and an organization remain as a subject in Korean and less prototypical transitive clauses tend to be translated as transitive clauses with the same inanimate subjects, whereas more prototypical transitive clauses tend to be translated as intransitive clauses with new subjects as the previous studies. Most of the other clauses also showed the similar syntactic changes as we already know. However, there were a few clauses that shows the difference from the former studies on English - Korean translation based on the animacy of a subject.

1. 서론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단순히 의미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두 언어 사이의 구조적이고, 인지적이고, 문화적인 차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국어와 영어는 어순이나 문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 항상 많은 문제들이 따른다. 그 중에서도 영어에서는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무생물 주어 타동사 구문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여러 특징들을 논하려고 한다.

김은일(2009)은 영어 타동사 구문에서 주어의 유생성이 한국어 번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아래의 문장을 살펴보자.

- (1) a. This ticket *admits* one person.
- b. *이 표는 한 사람만 입장시킨다.

(1)에서처럼 무생물주어 ‘This ticket’가 한국어에서도 그대로 번역이 되면, 아주 어색한 문장이 된다. (1a)를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자면, 영어 타동사 구문의 무생물 주어인 ‘this ticket’을 ‘이 표로’라는 부사구로, 생물 목적어인 ‘one person’을 ‘한 사람이’라는 주어로 격상시켜서, ‘이 표로 한 사람이 입장할 수 있다’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이전의 연구에서, 이러한 주어의 유생성이 영한 번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이루어져서 자세히 밝힌 바 있다. 신 애(2011)는 유생성에 따른 영어 타동사 구문의 한국어 번역 유형을 분석하여 연구를 통해 주어의 유생성이 영한 번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고, 김은일 외(2009)도 영한 번역에서 무생물 주어를 가진 영어 타동사 구문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번역문을 비교 및 분석하였는데, 영한 번역에서 생물주어는 한국어 번역문에서도 주로 주어로 유지되는 경향을 많이 보였고, 무생물 주어는 한국어의 특성상 타동사 구문의 주어 자리에 오면 어색한 의미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번역된다고 했다. 물론, 한국어에서도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무생물 주어를 사용한 타동사 구문을 쓰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울타리가 마당을 둘러싸고 있다’와 같이 타동성이 낮은 동사는 무생물 주어가 적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의 무생물 주어 타동사 구문이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 어떤 양상들이 나타나는지를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은일 외(2009)나, 신 애(2011) 등의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양상 외에, 어떤 번역 유형이 있는지 이 논문의 참고자료로 활용한 병렬 언어자료인, Walter Isaacson(2011)의 「*Steve Jobs*」(이하 Jobs로 표시)를 분석해서 연구해 보려고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생성(animacy)과 타동성(transitivity)에 대한 개념에 대해 소

개하고, 3장에서는 유생성이 없는 무생물 주어를 가진 영어 타동사 구문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알아볼 것이고, 마지막 4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다.



2. 이론적 배경

여기서는 본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한 번역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개념인 유생성(animacy)과 타동성(transitivity)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2.1. 유생성

유생성(animacy)이란 생명이 있는 생물(animate)과 생명이 없는 무생물(inanimate)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유생성이 다양한 언어의 문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예전의 연구에서도 이미 밝혀졌다 (Comrie 1989: 9장; Croft 1990; Yamamoto 1999; 김은일 2000). 유생성이 생물과 무생물,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은 유생성을 표현하는 요소들 사이에도 위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2) 유생성 위계

- a. 인칭위계: 1, 2인칭 > 3인칭
- b. 명사구 유형 위계: 대명사 > 고유명사 > 보통명사
- c. (진정한) 유생성 위계: 인간 > 비인간 생물 > 무생물

본 연구에서는 (3c)의 유생성 위계에서 유생성이 가장 낮은 무생물이 주어로 된 영어 타동사 구문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어떤 양상을 보이는 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지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다.

2.2. 타동성

이 절에서는 유생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동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유생성은 참여자(participant)의 타고난(inherent) 의미적 자질로서 동사나 다른 참여자와는 상관없이 결정이 되는 반면, 타동성은 참여자 및 동사의 의미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김은일 외 2009). Givón(1993, 2001)은 타동성의 개념을 주어, 목적어,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적 자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의하였다.

(3) 전형적인 타동성의 의미론적 정의

- a. 행위자성(agentivity): 전형적인 타동절의 주어는 의도(volitional)으로 행동하는 행위자(agent)이다.
- b. 피영향성(affectedness): 전형적인 타동절의 직접목적어는 구체적(concrete)이고 가시적으로(visibly) 영향을 받은(affected) 피동작주(patient)

이다.

- c. 완료성(perfectivity): 전형적인 타동사는 실시간으로 발생한, 사건의 시작과 끝의 경계가 분명하고(bounded), 종결되고(terminated), 빠르게 변화하는(fast changing) 것을 부호화한다.

여기서 전형적인 타동사 구문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주어)가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시작하고, 피동작주는 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사건에 의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받으며, 동사의 완료성은 동사가 표현하는 행동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며 대상에 대해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더(more) 전형적인 즉, 타동성이 높은 타동사 구문과 덜(less) 전형적인 즉, 타동성이 낮은 타동사 구문을¹⁾ 아래의 예에서 비교해 보자.

(4) a. John broke the window.

b. John saw the window.

(4a)는 행위자(즉, John)이 의지를 가지고 행위를 시작하고, 피동작주

1) 김은일 외(2009)에 따라서 여기에서도, 원형이론(prototype theory)에 입각해서 ‘전형적인/비전형적인’과 같은 이분법적 표현 대신에 ‘더(more)/덜(less)’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즉, the window)의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피영향성, 그리고 깨(즉, break)는 행위의 시작과 끝의 경계가 분명하고 빠르게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타동성이 높은 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4b)는 행위자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고, 피동작주에 가시적이거나 구체적인 변화가 없으며, 보(see)는 행위의 시작과 끝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타동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한 편, 김은일 외(2009)와 김명애(2002)에서는 인간은 의지를 갖고 사건을 주도할 수 있으므로, 가장 전형적인 행위자가 될 수 있지만, 바람이나 태양과 같은 무생물도 비록 의도는 없지만, 에너지와 영향력을 지니고 사건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보다 덜(less)하지만, 다른 무생물 보다는 행위자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행위자성은 유생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행위자가 의지를 가지고 행위를 시작할수록 전형적인 행위자이므로 행동에 대한 의지를 인식하는 존재, 즉 인간과 같이 유생성이 높은 존재가 타동사의 행위자인 주어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²⁾

지금까지 본 연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개념인 유생성과 타동성에 대해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다음 3장에서는 ‘Steve Jobs’ 평전 영한 번역본에서, 무생물주어 타동사구문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 Yamamoto(1999:60)는 Hinds(1983)을 인용하여 생물이 주어/절 주제(clausal topic)로, 무생물은 직접 목적어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고 한다(김은일 2000).

살펴보고, 그 결과대로 영한번역이 이루어지는지,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밝혀지지 않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는 없는지 분석해 보려고 한다.



3. 무생물주어 타동사구문의 영한번역 양상

본 장에서는 무생물 주어 타동사 구문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표1> 무생물 주어가 유지되는 경우와 변경되는 경우의 비율

주어 유지	주어 변경
96개 (64%)	54 (36%)

먼저, 주어가 유지되는 경우와 주어가 변경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었을 때, 주어가 유지되는 비율은 총 150개의 구문 중에서, 96개로 약 64%에 가까운 비율이었고, 주어가 변경되는 구문의 비율은 54개로 약 36%의 비율을 차지했고, 각각의 경우에서는 또 어떤 세부적인 양상이 나타나는지도 분석해 보았다.

3.1. 주어 유지

무생물주어 타동사 영어 구문이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 무생물 주

어가 유지 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 장에서는 무생물 주어를 유지하면서, 타동사 구문이 자동사 구문으로 번역되는 경우와 타동사 구문으로 번역되는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각각의 경우에서 또 어떤 세부적인 양상이 나타나는 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표2> 무생물 주어를 유지한 경우의 유형 및 빈도

타동사 구문으로 번역	79 (82%)
자동사 구문으로 번역	17 (18%)
계	96 (100%)

위의 표와 같이, 무생물 주어가 유지된 상태로 영한 번역이 이루어진 경우, 자동사 구문으로 번역되는 경우는 한 가지 유형만 나타나지만, 타동사 구문으로 번역되는 경우는 세부적으로 세 가지의 유형으로 다시 분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무생물 주어가 유지되면서 영한 번역이 이루어질 때 나타난 각 현상들을 구체적인 예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3.1.1. 타동사구문으로 번역

무생물 주어 타동사구문이 본래의 무생물주어와 동사의 타동성을 유지하면서 번역이 되는 경우를, 유형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니 아래의 표와 같았다.

<표3> 무생물주어가 유지되면서 타동사구문으로 번역되는 유형 및 빈도

인간 행위자 암시	48 (61%)
타동성이 낮아서 직역	28 (35%)
타동성이 높지만 직역	3 (4%)
계	79 (100%)

3.1.1.1. 인간 행위자 암시

인간행위자가 암시된 무생물주어가 유지되어 번역되는 경우의 예를 살펴보자. 김은일 외(2009)가 밝힌 것처럼, 무생물주어에 숨어서 역할을 하는 인간 행위자가 암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에서도

무생물 주어를 유지한 형태의 번역이 가능하다.

- (5) a. ...the United States is seeking ways to sustain its innovative edge[...] (p. xxi)
b. 미국이 혁신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인 [...] (국가)

국가(the United States) 자체는 생물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인간 행위가 그 속에서 활동이나 여러 가지 정치 행위와 같은, 여러 작용을 하기 때문에 'the United States'가 주어로 유지되어 한국어로 번역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음은 기업이나 단체를 의미하는 무생물주어가 한국어로 번역된 문장들이다.

- (6) a. The foundation also helped launch the People's Computer Company. (Jobs, p.59)
b. 그 단체는 또한 피플스 컴퓨터 컴퍼니의 발족도 후원했다. (단체)

- (7) a. Apple hired two engineers from Hewlett-Packard to conceive a totally new computer. (Jobs, p.93)
b. 애플은 완전히 새로운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HP의 엔지니어

두명을 영입했다. (기업)

위의 예문에서는 주어가 각각 국가, 단체, 그리고 기업을 의미하는 무생물이다. 두 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인간행위자가 속에서 활동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타동사구문의 주어로 유지된 채 번역되었다.

3.1.1.2. 타동성이 낮은 경우

타동사의 타동성이 낮은 경우에는, 무생물 주어와 타동사 구문의 형태가 모두 유지되면서, 거의 직역에 가깝게 번역이 되는 특성이 있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 (8) a. Fifty years later, the fence still surrounds the back and side yards of the house in Mountain View. (Jobs, p. 6)
- b. 50년이 지난 지금, 그 울타리는 아직도 마운틴 뷰 집의 뒤뜰과 옆 마당을 둘러싸고 있다.

(8)의 문장에서 주어 'the fence'는 유생성이 전혀 없는 무생물 주어이다. 여기서는 행위자의 의도가 있을 수가 없고, 목적어(피동작주)의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도 없으며, 행위의 시작과 끝의 경계가 불분명

하므로 타동성이 아주 낮다고 할 수 있다.

- (9) a. The story [...] described how hackers and phone phreakers had found ways to make long-distance calls for free. (Jobs, p.27)
- b. [...] 그 기사는 프리커와 해커들이 장거리 전화를 공짜로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9)에서도 주어와 동사를 살펴보면, 타동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어인 ‘story’는 어떤 특정한 사실이나 내용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명사이므로, ‘describe’라는 동사의 의미를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을 해도 어색하지 않다.

- (10) a. The two words together - Apple Computer - provided an amusing disjuncture.
- b. 그 ‘애플과 컴퓨터’ 두 단어의 조합은 흥미로운 효과를 유발했다.

(10)에서는 수여동사 ‘provide’가 사용되었다. 보통 한국어에서는 수여동사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서 무생물 주어 구문으로 번역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타동성이 좀 더 약한 다른 의미로 대체해서, 더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번역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부

분이다.

반면에, 동사의 특성상,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이거나, 타동성이 아주 높은 경우에도 무생물주어 타동사 구문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직역에 가깝게 번역이 된 경우도 있다.

(11) a. Your letter does not alleviate my concern in any way.

(Jobs, p.221)

b. 당신의 편지는 그런 나의 우려를 조금도 덜어주지 않습니다.

(11)에서도 주어는 의도성을 가질 수 없고, 동사가 목적어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지만, ‘alleviate’라는 타동적인 역할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직역을 해도 어색하지 않다.

3.1.1.3. 타동성이 높은 경우

앞 장까지는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밝혀져서 일반화 된 양상들을 보여주는 보편적인 영한 번역 유형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무생물주어 타동사 구문의 동사가 타동성이 아주 강하지만 직역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12) a. [...] the computer has to tell each pixel to be light or dark [...] (Jobs, p. 95)

b. [...] 컴퓨터는 각 픽셀에 밝기의 정도를 명령하고 [...]

(12)에서는 ‘computer’라는 무생물 주어가 ‘tell(명령하다)’로 번역이 되었는데, ‘명령’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위나 작용을 하도록 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도 생물은 아니지만, 특정한 작용을 일으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인화해서 직역처럼 번역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무생물 주어가 본질적인 의지나 의도성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특정한 물리적인 작용이나 변화를 일으키는 기능이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김은일(2010)에서는 바람, 태양, 구름 등과 같은 자연 무생물 주어도 의지 혹은 의도성은 지닐 수 없지만, 사건을 야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서 실제 사건을 주도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13) a. A powerful cold air mass over the Korean Peninsula pushed down temperatures well below freezing. (이영옥, 2001)

b. 한반도를 덮은 강력한 찬 공기 덩어리가 기온을 영도 이하로 떨어뜨렸다.

(13)의 예문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이 문장의 주어가 (11)와 같이 가시적인 변화나 물리적인 작용을 일으킬 수 없는 무생물 주어도 아니고, (9)와 같이, 어떤 행위를 함축하는 무생물 주어도 아니면서, 의지나, 의도성은 없지만, (12)의 주어 ‘computer’처럼 물리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기상조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들 표현은 아직 구어체에서는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지 않다. 구어체로 사용할 땐, “한반도 전체의 공기가 차가워서 기온이 영도 이하로 떨어졌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영어구문의 문어체적인 번역체에서 출발하여 사용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여겨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Langacker(1991)에 따르면, 용례중심모델인 인지언어학에서는 이를 고착현상(entrenchment)이라고 한다.

(14) a. The Macintosh is going to destroy the Lisa. (Jobs, p. 136)

b. 매킨토시가 리사를 망쳐놓고 팔거야.

(15) a. The Macintosh is going to ruin Apple! (Jobs, p.136)

b. 매킨토시가 애플을 망하게 할 거라고!

(14), (15)에서, 타동사의 의미를 가진 ‘destroy’와 ‘ruin’은 의도성도 담겨있고, 행위의 시작과 끝의 경계가 뚜렷하게 드러나며, 직접목적어에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끼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타동성이 높은 동사임에도 거의 직역처럼, 본래의 무생물 주어에 그 위치를 유지하면서 번역이 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영어의 표현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번역했다고 볼 수 있으며, 번역자는 무생물 주어인 ‘The Macintosh(매킨토시)’의 비중을 크게 다루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은일 외(2009)에서는, 무생물목적어를 지닌 무생물 주어구문은 타동성이 낮은 경우에는 번역문에서도 그 주어가 유지되지만, 타동성이 높을 때는 목적어가 일반적으로 번역문의 새로운 주어로 선택되어서 자동사로 번역된다고 했다. 그 연구 결과에 비해 이런 번역문은, 기존에 일반화된 한국어 번역유형의 범위를 벗어난 예외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3.1.2. 자동사 구문으로 번역

무생물주어 타동사 구문에서 본래의 무생물 주어는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 그대로 유지되지만, 타동사가 아닌 자동사구문으로 번역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아래의 경우를 살펴보자.

- (16) a. The Atari experience helped shape Jobs’s approach to business and design. (Jobs, p. 54)
- b. 아타리에서의 경험은 잡스가 사업과 설계에 대한 접근 방

식을 형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17) a. If a better name did not hit them by the next afternoon[...] (Jobs, p. 63)

b. 그 다음날 오후까지도 더 좋은 이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16)에서는, 무생물 주어와 그대로 유지되고, 동사의 의미가 타동사 구문 형태에서 자동사 구문 형태로 변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주어 'experience'가 'help'라는 행위를 하는 적극적인 의도를 가질 수 없는 무생물이기 때문이다. (17)에서도 타동성이 높은 'hit'이 비격식 표현으로 '생각이 떠오르다'라는 의미로, 자동사구문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본질적인 이유는 (16)과 마찬가지로 의도성을 가지지 못하는 주어이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타동사 구문으로 번역이 되면 어색한 표현이 된다.

(18) a. So it helped us grow brand awareness. (Jobs, p. 63)

b. 그것(애플과 컴퓨터는 함께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우리에게)큰 도움이 되었다.

(18)에서는 사역동사 구문에서 무생물주어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자동사구문의 형태로 번역이 되고 있다. (18a)에서는 'help'가 사역의미 타동사이지만, 한국어로 번역이 된 (18b)에서는 '도움을 주었다'가 아

닌, ‘도움이 되었다’인 자동사로 번역이 되었다. 서정수(1996)는 ‘되다’를 필수 부사어³⁾와 함께 어울려야 하는 불완전 자동사로 규정한다. 즉, (16b)와 (18b)의 ‘도움이 되었다’에서 ‘도움이’는 필수 부사어에 해당하고, ‘되었다’는 불완전 자동사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생성이 있는 목적어는 완전히 번역문에서는 생략되었는데, 한국어에서는 문맥상 주어를 알 수 있는 경우와, 의도성이 있지 않은 생물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문맥상 알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 (19) a. The partnership paved the way for what would be a bigger adventure together. (Jobs, p. 30)
 b. 이 장난은 둘이 함께 좀 더 큰 모험에 나서도록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19)에서도 ‘paved the way’는 본래 ‘길을 닦다’ 혹은 ‘어떤 상황을 조성하다’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어가 의도성을 가질 수 없는 무생물 주어이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자동사 구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게 여겨진다고 할 수 있다.

이상, 무생물 주어 타동사 구문에서, 주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들을 살펴본 결과, 무생물주어이지만 인간행위자가 암시되어 있는 기관,

3) 서정수(1996)는 불완전 자동사 ‘되다’의 선행어가 보어라기 보다는 필수부사어라고 칭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했다.

국가, 단체 등과 같이 인간의 역할에 의해 움직이는 주어가 쓰였을 때, 그리고 타동사지만, 타동성이 낮아서 본래의 무생물주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역처럼 번역이 되는 경우, 그리고, 무생물 주어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주어가 의도성을 가질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 타동사가 자동사 구문으로 번역되는 경우 등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형태로 번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지만, 무생물주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타동성이 높은 동사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하는, 기존 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예외적인 경우도 볼 수 있었다.

3.2. 주어 변경

본 장에서는, 무생물 주어 타동사구문이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 주어가 변경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주어가 변경되는 54개의 문장에서 타동사구문과 자동사구문으로 번역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4> 주어 변경시 타동사나 자동사로 번역되는 경우의 비율

타동사 구문으로 번역	16 (30%)
자동사 구문으로 번역	38 (70%)
계	54 (100%)

3.2.1. 타동사구문으로 번역

주어가 변경되면서 타동사구문으로 번역되는 경우는 주어가 변경되는 54개의 구문 중, 생물주어구문이 10개(19%), 무생물주어구문이 4개(7%)의 비율을 차지했다. 한국어는 생물주어구문일 때 타동사구문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고 자연스럽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다.

3.2.1.1. 생물주어구문

이 장에서는, 생물 목적어가 주어로 격상되면서, 자동사 구문이 아닌 타동사 구문으로 번역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생물주어구문으로 번역이 되는 경우는, 자동사구문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주어가 변경되는 54개의 구문 중 13개(24%), 타동사구문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10개(19%)로, 비율이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아래의 예문들을 살펴보자.

- (20) a. Job's compulsive search for self-awareness also led him to undergo primal scream therapy. (Jobs, p. 50)

- b. 자아 탐구와 깨달음을 향한 강박에 가까운 열정으로 인해
잡스는 파라이멀 요법도 경험하기에 이른다.

(21) a. This *made* him masterful at cajoling, stroking,
persuading, flattering, and intimidating people. (Jobs, p.
121)

- b. 이런 것이 있었기에 [잡스가] 능숙 능란하게 사람들을
구슬리고 달래고 설득하고 부추기고 겁줄 수 있었던 것
이다.

(22) a. That incident *led* Raskin to write a blistering memo to
Mike Scott. (Jobs, p. 112)

- b. 그 사건으로 인해 레스킨도 마이크 스콧에게 [잡스를] 비
난하는 메모를 보냈다.

위의 (20)부터 (22)까지 보면, 무생물이 주어인 사역의미 타동사 구문에서는, 무생물 주어를 이유를 나타내는 적절한 조사나 동사어미를 사용하여 부사구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타동성이 강한 사역의미 타동사의 주어로, 유생성이 없는 무생물 주어를 두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은 ‘자아탐구를 위한 강박에 가까운 열정이 그를 파라이멀 요법을 경험하도록 이끌었다’라고 직역을 하면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생

물 목적어를 주어로 격상 시켜서 번역을 했다. (21)에서 (22)까지의 구문들은 한국어로 번역될 때, 주어나 목적어를 문맥상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3) a. At Atari, his behavior *had caused* him to be banished to the night shift. (Jobs, p. 81)

b. 아타리 시절에는, 그런 성격과 행동 때문에 [그는] 야간 근무팀으로 쫓겨나기도 했다.

(23)에서는 한국어 번역문에는 주어가 없는 구문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앞서 언급한 적이 있듯이, 주어를 문맥상 알 수 있거나, 주어의 의도성이 없을 때는 생략할 수 있는 한국어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3)도 (20)부터 (22)까지의 구문들과 같은 사역의미 타동사 구문이지만, (23a)에서 알 수 있듯이, 생물 목적어 ‘him’의 보어 역할을 하는 to부정사가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의도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입장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동사 구문으로 번역이 되었다. 한국어에서는 주어가 의도성을 가지지 않으면 행위자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보편적이고, 동사에 비의도성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취하여 번역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다음 문장은, 영어 구문에는 무생물 목적어가 있지만, 한국어 번역구문에서는 생물 주어가 나타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24) a. The calculator won [him] top prize in a local contest
run by the Air Force. (Jobs, p. 23)

b. 그 계산기로 그는 공군이 개최한 지역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

(24)에서도, ‘그 계산기가 1등상을 획득했다’ 또는 ‘그 계산기가 (그에게) 1등상을 획득해 주었다’로 번역하면 한국어 특성상 어색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유생성에 관계없이 타동성이 높은 동사의 주어로 사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특성을 잘 알 수 있다. 이것도 역시,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무생물 주어(계산기)는 수단이나 원인을 나타내는 어미를 사용해서 부사구의 형태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생물주어가 등장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원래 동사의 타동성이 한국어 번역문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5) a. His talent as a machinist and fireman earned him
commendations. (Jobs, p. 2)

b. 기계공 및 화부로서 재능이 있었던 그는 포상을 받기도 했다.

(25)에서도 인간 목적어가 주어로 격상되고, 원래의 무생물주어는 새로운 주어를 수식하는 관계절의 형태로 번역이 되었다. 번역의 형태

는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이 구문도, ‘기계공 및 화부로서의 재능으로 인해 그는 포상을 받기도 했다’라고 번역을 해도 의미상 차이가 거의 없고, 어색함이 없으므로, 여기서도 앞의 다른 구문처럼,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구와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김은일(2010)에서 타동구문 내에 (사역)동사의 목적어, 소유주, 또는 전치사구에 인간참여자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인간참여자가 번역문에서 새로운 주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 현상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 한국어에서는 인간이 무생물보다 유생성이 더 높아서 주어자리를 차지해서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3.2.1.2. 무생물주어 구문

본래의 무생물 주어 대신, 다른 무생물이 주어로 격상되어 번역되는 경우엔 대부분이 자동사 구문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약 주어가 변경되는 54개의 구문 중, 7%에 해당하는 4개의 구문이 타동사 구문으로 번역이 되었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26) a. This allowed Apple to sell, for example, a magazine subscription through its online store[...] (Jobs, p. 410)
b. 이 데이터베이스 덕분에 애플은 자사 온라인 스토어를 통

해 잡지 구독권 등을 판매했 수 있었다.

(26)의 구문은 사역의미 타동사 구문인데, 무생물 목적어인 ‘Apple’이 주어로 격상되고, 타동사 구문으로 번역이 되었다. 김은일(2010)은 무생물목적어를 지닌 무생물주어구문의 타동성이 높을 때에는 목적어가 번역문에서 새로운 주어로 선택되어 자동사로 번역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 구문에서 주어로 격상된 회사를 의미하는 ‘Apple’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인간행위자를 암시하는 주어이기 때문에 타동사구문으로 번역해도 어색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한 편, 아래의 문장은 동사의 목적어가 아닌, 전치사의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로 번역이 되는 경우를 보여준다.

(27) a. Apple was already getting incoming pings from NeXT.

(Jobs, p. 298)

b. 넥스트에서 이미 의향을 타진해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27)에는 (26)처럼 무생물주어 구문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동사의 목적어가 아닌, 전치사의 목적어가 번역문에서 의미상 주어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런 경우는, 전치사의 목적어인, ‘넥스트’를 행위의 주체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어로 격상된 ‘넥스트’가 인간행위자를 암시하는 회사명이기 때문에, 한국어 타동사구문으로 번역을 해도 자연스럽다.

3.2.2. 자동사구문으로 번역

주어가 변경되면서 자동사구문으로 번역이 되는 경우는, 생물주어구문이 54개 중, 13개(24%)였고, 무생물주어구문이 27개(50%)로, 무생물 주어구문의 비율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3.2.2.1. 생물주어 구문

원래는 무생물 주어 구문이었던 영어 구문 중, 목적어가 유생성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될 때 주어로 격상되는 경우가 있었다. 생물 목적어나, 유생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주어로 격상되어 번역된 문장이 총 23개였고, 타동사구문으로 번역된 것과, 자동사구문으로 번역된 것의 비율은 앞서 밝힌 대로 각각 13개(24%)와 10개(19%)로 거의 비슷했다. 아래의 예문들을 살펴보자.

- (28) a. The audacity of this pirouette technique would have dazzled Diaghilev. (Jobs, p. 120)
- b. 그런, 급회전하는 기법의 뻔뻔함에는 디아길레프(러시아의 미술평론가)도 감탄했을 것이다.

(29) a. If something excited him or sparked some thoughts about corporate strategy[...] (Jobs, p. 345)

b. 또 [그가]⁴⁾ 어떤 것에 흥분하거나 기업 전략에 관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경우[...]

(30) a. [...] the company's recent reorganization left me with no work to do [...] (Jobs, p. 216)

b. 최근 조직 개편에 따라 저는 이렇다 할 중책도 맡지 못하
는 입장이 되었고...

(28a) 구문의 동사는 심리동사(심리상태 동사)에서 AMUSE 동사류⁵⁾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급회전하는 기법의 뻔뻔함이 디아길레프를 감탄하게 했다’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지 못한 표현이 된다. 한국어에서는 무생물주어가 생물목적어에게 감정을 유발시킨다는 능동의 의미로 쓰는 경우보다는 생물주어가 무생물주어로 인해 감정을 느낀다는 표현이 훨씬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29)에서도 동사 ‘excited’는 AMUSE 동사류이고, 마찬가지로 번역은 감정을 일으킨다는 의미가 아닌, 감정을 느끼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

4) [] 부호 안에 있는 것은, 원래의 자료에는 없지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임의로 삽입한 것임을 알린다.

5) Levin B.(1993)은 경험자가 목적어인 심리동사를 ‘AMUSE 동사류’로 분류했다.

졌음을 알 수 있다. AMUSE 동사류는 무생물 주어가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은 한국어와 배치를 이루는 영어 타동사 중의 한 종류로,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 무생물 주어가 감정을 유발시키고, 생물 목적어가 감정을 느끼고, 경험하는 의미로 흔히 쓸 수 있는 동사들이고, 대부분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성을 가지는데, 한국어에서는 보편적으로 목적어가 나타나지 않는 자동사나 형용사 구문의 형태로 표현한다. (29)의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주어가 생략된 형태로 번역되었지만, 의미상 번역문의 주어는 영어 타동사 구문에서의 생물목적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은, ‘그 회사의 최근조직개편이 나를 아무 할 일이 없는 상태로 내버려뒀다’고 번역을 하는 것보다는, 생물 목적어를 주어로 격상시켜서 자동사 구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영어 무생물 주어 타동사구문의 목적어가 생물일 때 주어로 격상되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입장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입장이 되므로 주로 자동사 구문으로 번역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한 편, 동사의 목적어가 아닌, 다른 요소가 주어로 격상되면서 자동사구문으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래의 문장을 살펴보자.

(31) a. These caught Jobs’ eye. (Jobs, p. 79)

b. 잡스는 이 광고에 매료되었다.

(31)은 ‘이 광고들이 잡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라고 번역해도 어색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또는 ‘잡스의 눈길이 이 광고를 향했다’의 식으

로 번역해도 자연스러운 편이다. (31b)와 같이 반드시 생물 주어를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구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구문은 소유격이었던 Jobs라는 사람에 비중을 두고 번역을 하려는 번역자의 의도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고, Jobs는 생물주어이지만, 주어의 의도성이 없기 때문에 자동사구문으로 번역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2.2.2. 무생물주어 구문

무생물 목적어가 주어로 격상되어 번역되면서, 자동사 구문으로 번역되는 문장은 대부분 ‘have(CONTAIN 동사류)⁶⁾’ 동사가 들어간 문장들이었는데, 이러한 구문들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원래의 무생물 주어는 주로 처소격조사⁷⁾를 사용해서 부사구의 형태로 번역이 되고, 목적어가 주어로 격상되며, ‘있다’라는 자동사의 형태로 번역이 되었다.

- (32) a. The house had a garage in which they tinkered around.
b. 그 집에는 차고가 있었었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기계를 만지작거렸다. (Jobs, p. 9)

6) Levin, B.(1993)은, contain, have, include, omit 등의 동사들을 CONTAIN 동사류로 분류했다.

7) 처소, 시간적·공간적 범위, 지향점 따위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학교에 가다’에서 ‘에’ 따위이다.

- (33) a. [...]every Apple product has included the proud
declaration, “Designed in California.” (Jobs, p. 133)
- b. 모든 애플 제품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되다”라는 자랑
 스러운 문구가 포함되었다.

(32)에서는 주어 ‘house’가 처소격으로, 장소를 의미하는 부사구의 형태로 번역되었고, 목적어인 ‘garage’가 주어로 격상되어서 자동사 구문으로 번역이 되었고, (33)에서는 주어인 ‘Apple product’가 처소격조사를 써서 공간적 범위의 개념으로 번역이 되었고, ‘declaration’이 주어가 되면서 수동태로 번역이 되었다. (32)에서, CONTAIN 동사류는 무생물주어에 타동사적 의미로 적용했을 때, 어색하기 때문에 ‘있다’라는 의미의 존재구문으로 번역을 하는게 한국어에 자연스럽고, (33)에서도, ‘include(포함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도, 넓은 의미에서 CONTAIN 동사류에 포함되기 때문에, 타동성을 약화시켜서 수동태에 가깝게 번역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을 갖는 예를 살펴보자.

- (34) a. The Macintosh would have limited slots. (Jobs, p. 138)
- b. 매킨토시는 한 개의 슬롯도 없이 제작되었다.

(34)에서도 역시 ‘have’동사의 의미가 한국어 번역구문에서는 사라지

고, ‘제작되었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번역이 되어 있다. 이 문장도 (33)처럼, 인간행위자 주어를 개입시키면서, ‘매킨토시에는 한 개의 슬롯도 없었다.’라고 번역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구문이 된다. 하지만, (34)에서는 원래의 주어인, 제작된 제품(Macintosh)의 특징을 부각시키려는 번역자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으로, 타동사 ‘have’가 사용되었을 때, 영한 번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영어동사 ‘have’를 한국어의 상당어구인 ‘가지다’로 번역하면 전혀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다. 김은일 외(2009)에서는, ‘I have a son.’의 번역문으로서 ‘나는 아들을 한 명 가진다.’보다는 ‘나는 아들이 한 명 있다.’가 더 자연스럽다고 예를 들었다. 이 특징은, 위의 구문들을 보면 주어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자주 보이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신영(2002)에 따르면, ‘have’, ‘get’, ‘obtain’등의 CONTAIN 동사류의 동작소유동사들이 지닌 의미, 즉 소유하는 의미의 색채는 퇴색되고 소유하고 있는 결과만을 나타내는 양상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 위의 결과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래를 살펴보면, 동사의 타동성이 약해지는 것 외에는 거의 변화가 없이 번역되는 것 같은 ‘have’동사 구문도 있다.

- (35) a. The Apple II had eight slots. (Jobs, p. 138)
 b. 애플II는 여덟 개의 슬롯을 가지게 되었다.

(36) a. Both assessments contain a lot of truth. (Jobs, p. 98)

b. 두 평가는 상당한 진실을 담고 있다.

(35)도 ‘애플II에는 여덟 개의 슬롯이 있었다.’로 번역하면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한국어 구문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주어인 ‘애플II’가 갖고 있는 기능(특징)을 묘사하는 용도로 쓰였으므로, ‘have’가 비의도성을 띠는 형태로 번역이 된 것 외에는, 주어나 목적어는 영어 구문과 한국어 번역구문에서 차이가 없는 양상을 띠고 있다. (36)도 마찬가지로 CONTAIN 동사류의 타동사가 사용되었는데, 본래의 무생물주어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번역되었다. (36)도 ‘두 가지의 평가에는 상당한 진실이 담겨 있다.’로 번역해도 어색한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보편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35)의 주어 ‘애플II’와 (36)의 주어 ‘assessments’는 모두 인간이 만든 산물이며, 의도성도 없고, 각 문장의 동사는 타동성이 낮으며, 그 산물들의 기능이나 특징(내용물)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같은 종류의 동사에 포함되어도, 표현하고 싶은 의도에 따라서, 번역의 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다.

(37) a. The refrain includes the haunting chant[...] (Jobs, p. 51)

b. 후렴구에서 뇌리에 깊숙이 박히는 노랫말이 반복된다.

(37)은 CONTAIN 동사류의 동사라고 볼 수 있는 타동사 include가

사용된 구문이지만,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목적어를 수식하던 형용사가 동사화 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후렴구는 반복되는 노랫말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번역하면 어색한 표현이 되고, ‘후렴구에는 반복되는 노랫말이 있다’라고 번역하면 보다 자연스럽긴 하지만, 무생물 목적어를 주어로 격상시키면서, 그것을 수식하던 형용사를 서술어의 형태로 변형해서, 보다 더 자연스러운 형태로 번역했다고 볼 수 있다.

전치사의 목적어인 무생물이 주어로 번역된 구문도 있었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38) a. It reminds me of my youth. (Jobs, p.384)

b. 이걸 보면 젊었을 때가 떠오릅니다.

(38)에서는 영어 타동사 구문에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한국어 번역문의 주어로 격상되었다. ‘youth’는 유생성이 없는 무생물주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에는 자동사구문으로 번역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Steve Jobs(스티브 잡스)’ 영한 번역본에서 발췌한 무생물 주어 타동사 구문 150개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고, 몇 가지 다른 예문들을 조금씩 첨가하여,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 어떤 양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한국어와는 어순 체계도 다르고 주어가 무조건 있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 한국어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자연스러운 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타동사가 자동사로 번역되거나 타동성을 유지하는 동사로 번역되기도 하고, 주어가 유지되거나 변경, 또는 생략도 될 수 있는 경우 등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양상 외에 어떤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물론 문어체에서 간혹 무생물주어구문을 그대로 직역한 표현들이 한국어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런 표현이 어색하게만 여겨지지는 않는 경우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본래의 무생물 주어가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는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첫 번째, 인간행위자가 암시되는 경우, 두 번째, 타동성이 낮은 동사라서 거의 직역이 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 동사의 타동성을 없애고, 자동사 구문으로 번역되는 경우들이 주를 이루었다. 무생물주어지만 인간행위자가 암시되는 경우와, 동사의 타동성이 낮은 동사인 경우에는, 한국어로의 번역도 주로 타동사 구문으로 이루어졌다.

무생물 주어가 변경되는 경우는 첫 번째, 주로 ‘have’, ‘include’ 등 CONTAIN 동사류의 타동사가 쓰이고, 그 동사의 목적어가 무생물일 때는 그 목적어가 주어로 격상되고, 동사의 의미는 ‘가지다’라는 의미가 아닌 ‘있다’, ‘존재하다’등 자동사구문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두 번째, 생물 목적어가 주어로 격상되어 번역되는 경우는, 사역의미 타동사구문과 심리동사(AMUSE 동사류) 구문이 주를 이루었다. 사역의미 타동사구문은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 주로 본래의 무생물주어는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조사나 어미를 사용해서 부사구의 형태가 되었으며, 심리동사(AMUSE 동사류) 구문은 ‘무생물 주어에 감정을 유발시킨다’는 식의 표현이 ‘생물목적어가 주어에 있어서 감정을 느낀다’는 의미로 번역이 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드물지만 주어나 목적어가 아닌, 소유격이나 다른 수식어에 포함되어 있던 명사가 주어로 격상되어서 타동사 구문이나 자동사 구문으로 번역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경우에도, 새롭게 주어에 된 명사가 유생성을 내포하고 있으면, 타동사구문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사구문으로 번역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한국어에서는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되거나, 원문에는 없던 존재가 주어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고, 동사의 의미 자체가 사전

적인 의미와는 조금 다른 뜻으로 의역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가 동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상은 대부분 기존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내용이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던 현상도 발견되었다. 동사 자체의 타동성은 강하지만, 의도성이 전혀 없는 무생물 주어가 그대로 의인화 되어서 직역처럼 번역이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었다.

특히 ‘Steve Jobs’ 평전은 한 기업가의 일생을 그린 내용이라는 특성상, 인간행위자를 내포하고 있는 기업 명칭이 주어로 쓰인 무생물주어 구문이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타동사구문의 주어가 변경되지 않고 한국어로 번역이 된 문장이 기존 연구에 비해 훨씬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영어의 무생물 주어 타동사구문이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 대체적인 특징, 양상들은 알 수 있었지만,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절대적인 공식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번역자의 의도와 원문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기에, 번역이라는 것이, 무조건 적이고 획일화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언어적 특성들에 착안해서, 한 언어를 번역하는 것은,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비교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

분석자료 목록

Walter Isaacson. 2011. 「Steve Jobs」. New York: Simon & Schuster.

안진환. 2011. 「스티브 잡스」. 서울: 민음사.



참 고 문 헌

- 김명애. 2008. 「영어 생물주어와 무생물주어의 한국어 번역유형 비교」.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 김신영. 2002. 「영어와 한국어에 나타난 타동성의 부호화 차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 김은일. 2000. 유생성의 문법. 「현대문법연구」 20, 71-93.
- 김은일. 2001. 유생성 부호화의 유형론: 한국어·일어·영어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문화학회」 1, 37-57.
- 김은일. 2010. 「부호화체계와 번역」 서울: 한국문화사.
- 김은일, 김명애, 정연창. 2009. 유생성이 영한 번역에 미치는 영향. 「언어과학」 16(1), 23-40.
- 서정수. 1996. 「국어문법」.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 신 애. 2011. 「유생성에 따른 영어 타동사 구문의 한국어 번역 유형」.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 이영옥. 2001. 무생물 주어 타동사구문의 영한번역. 「번역학연구」 2.1, 53-76.
- Comrie, B. 1989.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Second E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roft, W. 1990. *Typology and Univers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vón, T. 1993. *English Grammar: A Function-Based Introduction, Volume I*. Amsterdam: John Benjamins. (김은일, 박기성, 채영희 (역). 2002. 「기능영문법 I」. 서울: 박이정)
- Hinds, J. 1983. Topic Continuity in Japanese. In T, Givón (ed.), *Topic Continuity in Discourse*.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Langacker, R. 1991. *Concept, Image, and Symbol: The Cognitive Basis of Grammar*. Berlin: Mouton.
- Levin, B. 1993. *English Verb Classes and Alternation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Yamamoto, M. 1999. *Animacy and Reference*. Amsterdam: John Benjamins.

감사의 글

부경대학교 대학원에 정식으로 입학한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날을 회상해 보면,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해 온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은일 지도교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덕분에 이렇게 하나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의 신념을 지키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신 김은일 교수님과의 인연은 저에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존경스럽고 훌륭하신 교수님께 더 나은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한 점이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저는 제가 직업으로 삼고 있는 영어 강의를 위한 학문적인 지식이 2년 전보다 훨씬 더 깊고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의 논문을 심사하고 평가해 주신 박순혁 교수님과 한지원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학부를 마친 지 거의 10년 만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결혼을 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함께 겪어왔지만, 늘 나를 먼저 걱정해주고 챙겨준 아내 지연이에게도 정말 고맙고, 앞으로는 더욱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고향 진주에서 저를 응원도 해 주시고, 때로는 걱정스런 마음으로 저를 지켜봐 주시기도 했고, 힘들 때 그 누구보다 많은 위로가 되어 주셨던 양가 부모님들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니다. 그리고, 고향 진주에 계신 할머니, 그 동안 일과 공부를 병행하느라 자주 찾아뵙지도 못해 드린 게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제는 할머니도 좀 더 자주 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곧 귀엽고 사랑스러운 증손주도 보시게 될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 외에도, 지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찾아뵙지 못한 분들과, 마주하기 힘들었던 친구들, 그리고 선후배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는 정말 많은 소중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으며, 그러한 분들에게서 정말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본분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논문을 완성한 기쁨과 보람을 저를 아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5년 2월 -

김 태 훈